중 국

제3회 중국 저작권 문화 학술 세미나 개최

2025. 12. 31.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중국국가판권국(中国国家版权局) 설립 40주년을 계기로 2025년 12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판권보호센터(中国版权保护中心), 중국판권협회(中国版权协会), 중국신문출판연구원(中国新闻出版研究院)이 공동 주최하고, 중화판권서비스유한공사(中华版权服务有限公司) 및 중국판권 잡지사 유한공사(中国版权杂志社有限公司)가 협력한 가운데 <제3회 중국 저작권 문화 학술 세미나(第三届中国版权文化学术研讨会)>가 개최됨.

○ 문화강국 전략과 저작권 거버넌스 강화

중앙선전부 판권관리국 국장(中央宣传部版权管理局局长) 왕즈청(王志成)은 저작권이 문화강국 전략과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저작권 문화 학술연구는 정책 방향의 일관성, 성과의 대중 환류, 법치 기반 강화, 핵심 저작권 산업 육성과 성과 전환,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 대외 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이자 중국판권협회 부이사장(全国政协委员、中国版权协会副理事长) 신광웨이(辛广伟)는 불법복제 단속과 저작자 권익 보호를 혁신의 전제로 보고 법 준수와 엄정한 집행,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통해 사법·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디지털·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제도 정비 과제

중국국가판권국 설립 40주년을 계기로 진행된 기조발언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성과와 함께 디지털·인공지능 환경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집중 논의되었음. 전 국가판권국 국장(前国家版权局局长) 류빈제(柳斌杰)는 법체계 정비와 행정·사법 이원 보호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제시하는 한편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유통 문제 대응, 인공지능 생성물의 권리 귀속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향후 과제로 제안함. 베이징대학 교수(北京大学教授) 장핑(张平)은 인공지능 환경에서 작품성 및 침해 판단 기준을 객관적 요건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한편, 학습데이터의 적법성 검토와 간접 침해 책임 도입 등을 포함한 책임 배분 기준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칭화대학 교수(清华大学教授) 선웨이싱(申卫星)은 AI 학습에 저작권 보호 데이터가 활용되는 경우 법정허락 등 제도적 경로를 검토하고 합리적 대가 지급을 통해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 간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참고자료

중국판권보호센터(中国版权保护中心)
- https://mp.weixin.qq.com/s/zdqUk5dw_bL8T3k3KHA6mQ